

職前教師에 대한 教授法 指導

—Reflective Teaching을 중심으로—

李 輽 元

(忠南大 技術教育科)

教師가 專門職業人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도 教育心理學이나 教授學習理論에 바탕한 實驗的, 臨床的, 實際的 授業經驗을 갖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는 職前教師들이 보다 自信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教職의 專門性을 제인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I. 序 論

1984년 4월 현재 20개 國立大學의 총 583개 학과에 56,500여 명의 학생과 66개 私立大學의 1,525개 학과에 125,900여 명의 학생이 教師敎育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大學 중 90% 이상에서 총 大學生數의 25%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職前教師敎育(preservice teacher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20단에 가까운 職前教師들은 專門性이 提高되고 있는 教員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教師敎育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가르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을 익히기 위하여 여러 專門敎科目 이외에 필수 敎科目으로 教授學習論, 敎科指導法 등을 이수하고, 또 中·高等學校 敎育現場에서 敎育實習을 하게 된다.

筆者가 근무하는 대학의 機械工學敎育科 등 8개 敎育學科에 재학하고 있는 500여 명의 畢業

班 학생들도 이미 전국 87개 協力學校에서 4주간 ('85.5.6~6.1)의 敎育實習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들이 敎育實習을 마치는 마지막 주에는 대체로 한 시간의 실제 示範授業을 하게 되고, 대학의 指導敎授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 授業을 참관하게 된다. 교단에 서서 생전 처음 授業을 이끌어 나가는 教生 자신보다 교실 뒤에서 協力學校 校長先生님과 나란히 앉아 그 수업을 參觀하는 대학의 指導敎授가 더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고 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經驗을 거의 해마다 체험하게 된다. 그 때문에 대학에서의 職前教師들에 대학 敎授法 指導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II. 職前教師들에 대한 敎授法 指導類型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敎職敎科의 講義는 그 受講生 수가 과다한 편이다. 따라서 "Do as I say, not as I do."式 講義가 흔히 이

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職前教師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教授學習理論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경험을 거치지 못하고 教育實習에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發令을 받아 부임하는 첫날부터 주 30시간 안팎의 實際授業을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工學徒가 鋳造工學의 理論을 바탕으로 銑鐵을 용해하여 製品을 만들고, 그 材質의 成分를 분석해 보고, 그 性能을 시험해 보듯이, 教師가 專門職業人으로서 그 專門性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도 教育心理學이나 教授學習理論에 바탕한 實驗的, 臨床的, 實際的 授業經驗을 갖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職前教師들에게 보다 自信을 갖고 教壇에 설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교사의 誕育한 教授方法을 높이 평가하여 교직의 專門性을 再認識케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教生이나 初任教師가 직면하게 되는 일선 학교의 教室狀況은 매우 生動的이고 多樣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Do as I say, not as I do.”식으로 익힌 知識만을 가지고 바로 教壇에 서게 하는 일은 解剖學 講義만 듣고 臨床經驗이 전혀 없는 醫師에게 子女의 心臟手術을 맡기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많은 나라에서 教員資格 要件을 보다 강화하고 이의 發給要件의 하나로 職前教師教育 기간중에 충분한 實驗的, 臨床的, 實際的 授業經驗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Teacher Education and Certification [NASDTEC], 1981, 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 1982).

여기에서 實驗的 授業經驗이란 대학의 캠퍼스 내에 教室狀況을 모델화한 實驗室을 꾸며, 여기에서 授業能力을 익혀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티아칭 (microteaching), 시뮬레이션 (simulation), 리플랙티브 티아칭 (reflective teaching) 등이 이에 속한다.

臨床的 授業經驗 (clinical teaching experience)이란 일선 학교 教室狀況에서 자주 제기되는 問題들에 대하여, 이를 記錄한 시나리오, 또는 테이프 등을 관찰하고 이에 알맞는 授業方法을 탐색케 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토콜 (protocols),

事例研究 (case study)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實際的 授業經驗이란 적절 일선 학교 教室에서의 수업경험을 말하며 教育實習중인 職前教師가 협력학교 教師의 지도하에 示範授業을 하는 경험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 經驗을 체험하기란 좀체로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大都市의 學校 중에는 年中 50여 명이나 되는 教生을 받아들여야 하는 학교도 있어, 在學生들의 授業缺損을 우려하여 教生들에게 實際 授業經驗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4주간의 教育實習을 마쳤다고 해도 實際 授業經驗을 한 시간도 체험하지 못한 職前教師들이 허다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實驗的·臨床的 授業經驗을 마련해 주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職前教師들에게 教授法을 지도하는 方案을 살펴보면, 大學 안에서 指導하는 方案과 大學 밖에서 指導하는 方案이 있다. 前者は 대학 캠퍼스 안에 실제 教室狀況을 모델화한 實驗室을 갖추어 教授法을 지도하는 방안이고 後者는 教育實習을 일선 學校에 나아가 실시케 함으로써 실제 教室狀況에서 教授法을 익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들 각자의 상황하에서 直接的, 具體的 授業經驗을 갖도록 하는 方案과 다른 사람의 授業을 觀察하는 등, 間接的, 代替的인 授業經驗을 제공하는 方案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Do as I say, not as I do.”와 같이 抽象的, 想像的으로 教授法을 익히게 하는 方案이 있는 바 이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本稿에서는 microteaching, simulation, protocol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 reflective teaching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reflective teaching이 다른 教授法 指導 方案에 비하여 별도의 실험실이 필요 없고 일반 講義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 미디오 카메라 등 機器 裝備, 이에 따른 人力 없이도 이 reflective teaching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대부분 大學의 現실 與件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활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1〉 職前教師에 대한 教授法 指導 方案

條 件 經 驚	一線學校 實際 教室 狀況	大學內의 모델화한 教室 狀況
直接的, 具體的 經驗	실제 授業을 전제로 한 教育實習	microteaching reflective teaching simulation game simulator
間接的, 代替的 經驗	現職教師 授業觀察 錄畫테이프 觀察 protocol case study	모델화한 教室狀況 테이프 觀察 fiction film fiction book
抽象的, 想像的 經驗	실제 學校의 教室狀況 또는 이를 모델화한 大學의 實驗實習室 狀況에서의 教授經驗을 전혀 體驗하지 않고 講義·讀書 등을 통한 教授方法 練習	

1. 마이크로티이칭(microteaching)

Stanford大學校의 Allen 등에 의하여 創案된 마이크로티이칭(이하 MT라 함)은 1960년대 초반 미국 教師教育機關에 일례 봄을 일으켰다. 이 방법은 教師에게 필요로 하는 授業技術을 18개로 분류하고 職前教師들이 그 하나 하나에 대하여 5~20분간의 授業을 실시해 보도록 고안되었다. 이 18개의 授業技術 중에는 授業 전 學習動機誘發, 效果的인 質問法, 例示技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는 한 兒童에게 5~20분의 授業을 실시하고, 이 수업 장면을 녹화한 테이프를 동료學生 그리고 指導教授와 함께 검토한 다음에 같은 内容을 再計劃하여 5명 이내의 兒童들에게 다시 수업을 거쳐 하나 하나의 授業技術을 익혀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兒童을 때에 맞추어 大學으로 초치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專門家의 동원(教授學習 專門家, 錄畫專門家),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등 裝備가 필요하고 1인당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한번의 授業으로 끝내고 마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와 같은 短點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 MT는 職前教師들이 직접 授業을 計劃하고 이를 實踐에 옮겨 보고, 또 錄畫테이프를 觀察함으로써 自己 授業을 評價해 볼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고, 복잡하고 力動的인 授業技術을 單純化하여 이를 한 가지씩 集中的으로 익혀 나갈 수 있는 長點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學者들이 이를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리나 20여 년 전에 있었던 봄은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다.

2. 시뮬레이숀(Simulation)

Stanford 팀에 의하여 MT가 개발되고 있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Oregon에서, 다음에는 New York, Tennessee, Ohio 등 각지에서 職前教師의 授業技術 向上을 위한 시뮬레이숀(이하 SM이라 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대학의 캠퍼스 안에서 일선 學校의 教室狀況에 보다 접근하고 이에 부합되는 教授法을 지도해보려는 試圖하에 시작되었다(Cruickshank & Broadbent, 1968, Cruickshank & Leonard, 1967). 이들 연구는 대체로 現職에 있는 初任教師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실제 教室狀況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問題들을 調查·分析한 다음, 여기에서 추출된 문제들을 여러 가지 媒體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숀화 한다. 이는 인쇄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映像화한 필름이나 테이프일 수도 있다. 이를 대학의 模擬教室(mock class) 또는 教授法實驗室(teaching problem laboratory)에서 職前教師들에게 제시한다. 職前教師들은 이를 관찰하고 理論的 根據를 바탕으로 하여 最適의 授業方案을 스스로 찾아 본다. 때로는 경험 많은 現職 主任教師들로 구성된 指導委員會에서 合議·提示된 方法과도 比較·討論하기도 한다.

이 SM은 職前教師들로 하여금 教室狀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事前에 熟知시키고, 教授學

習理論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고, 中·高校 學生들의 授業缺損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大學 實驗室에서 수업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갖는 일면, 실제 教室狀況이 아닌 대학 실험실 안에서의 活動이기 때문에 植重性이 없어지기 쉽고 또 現場狀況에 적합하였을 때에는 달리 반응할 수도 있으며, 理論과 實際에 精通한 教授 학보의 어려움 등 短點을 대포하고 있다.

3. 프로토콜(Protocols)

1969년 발표된 유명한 Smith, Cohen, Pearl의 報告書 *Teacher for the real world* 가 '70년 대의 프로토콜(이하 PT라 함)에 대한 研究를 촉진시켰고 聯邦政府 文教當局으로 하여금 이를 연구에 대한 財政支援을 결단케 하였다. Protocol이란 원래 事件 그대로를 事實대로 記錄한 것 (an original record of an event)을 말한다. Smith 등은 위 報告書에서,

“현직교사의 거의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적감적이고 상식적인 판단하에 반응 대처해 나감으로써 때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직전교육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론과 연관시켜 맹청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pp. 28~29).”

라고 指摘하면서 職前教育에서 PT의 活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PT는 현장 錄畫 필름, 또는 목격한 대로의 기록 文書일 수도 있다. 이 PT를 職前教師들에게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教師教育者인 大學 教授가 이를 보고 그 事件을 觀照할 수 있는 聰明知識을 찾아낸다. 여기에서의 聰明知識은 觀念的 理論, 定義, 事實, 定理 등을 뜻한다.

教授가 일단 PT와 이와 관련된 知識을 찾아낸 다음에 비로소 PT를 職前教師들에게 보여주고 이 事件現像을 분석하고 관련된 知識을 찾아내어 이를 활용하여 對處方案을 강구하도록 한다.

어떤 事件을 PT에 담을 것이나에 대해 Smith 등(1969)은 教育的으로 有意한 事件(events of educational significant)이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領域으로 大別함으로써 비단 教授技

術뿐만 아니라 教職生活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당면하는 諸般問題에 대하여 合理的으로 그리고 冷徹하게 對處할 수 있는 能力を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mith et al., 1969).

1) 教室 안 狀況

- ① 教授學習狀況
- ② 學級管理運營狀況

2) 教室 밖 狀況

- ① 學校運營計劃, 同僚·上司와의 關係狀況
- ② 學父母, 地域社會人士와의 關係狀況
- ③ 教職團體와의 關係狀況

Smith 등은 원래 PT는 職前教師들이 익혀야 할 教育的으로 意義 있는 事件을 기록하여야 하고 관련된 理論을 기초하여 이를 觀照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개발된 資料는 理論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에 알맞는 事件을 記錄, 이를 활용하는 PT 즉 主客이 轉倒된 PT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PT를 실제 開發·活用하는 데에는 豐은 努力과 時間 그리고豫算을 필요로 함은 물론, 大學의 教授가 실제 教室狀況에 보다關心이 있고 이에 대한 理論을 바탕으로 연구하려는 기본 자세가 없으면 소기의 成果를 거둘 수 없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職前教師들에게 間接的인 方法으로나마 教育的으로 意義 있는 事件, 概念 등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實際的 問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理論을 공부하게 하여 이를 直感的, 常識的으로 判断, 問題를 더욱 어렵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長點들로 인해서 學界의關心을 끌고 있다.

III. 리플렉티브 티이칭(Reflective Teaching)

리플렉티브 티이칭(이하 RT라 함)은 Ohio 州立大學校의 Cruickshank 팀에 의하여 최근에 제시된 教授法 指導 方案이다. reflective는 원래 ‘思慮 깊은’ ‘熟考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 RT는 “思慮 깊은 授業”, “熟考하여 計劃·實踐하고 評價해 보는 授業”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授業을 再吟味하고 수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RT의 创案者 Cruickshank의 말을 빌면 MT, 시뮬레이션, 프로토콜의 短點을 보완하고 授業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일관된 體驗을 가장 經濟的인 方法으로 제공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 이 RT라고 한다(Cruickshank, 1984).

이 RT의 과정을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大學의 教授法 指導教授는 班 學生을 5~6명이 한 組가 되도록 몇 개組로 나눈다.

② 각組에서 한 학생을 '任命教師(designated teacher)'로 위촉한다. 이 任命教師는 그 役割이 끝나면 다른 學生이 위촉되어 組員 모두가 한번씩은 임명교사가 되도록 한다.

③ 각組의 任命教師는 指導教授로부터 RT課題를 받는다. 각 조의 任命教師 모두가同一한 내용의 RT課題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강의시간까지 그 RT課題內容을 각각 자기組員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는最善의 授業을 준비해 오도록 한다.

④ 대학의 指導教授는 任命教師들에게 이 RT의 趣旨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들이 준비해 온 授業이 끝난 다음 각組別로 小集團討議를 할 것을 지시한다.

⑤ 다음 예정된 講義時間이 돌아오면 講義室의 책상을 組別로 마주 앉게 배치하고 "시작" 신호와 함께 任命教師가 준비해 온 授業을 시작하게 한다. 授業內容은同一하나 각組의 授業進行狀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흔히 볼 수 있다.

⑥ 10~15분 동안의 授業이 진행되면 일제히 授業活動을 마치게 하고 각組 學習者가 된組員들에게 授業內容에 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문제는 사전에 RT 과제 안에 들어 있다) 또한 學習者 滿足度 調查表를 記入하게 한다.

⑦ 이어서 조별로 小集團討議가 시작된다. 이 小集團討議의 目的是 모든 參與學生들로 하여금 授業에 대하여, 그리고 學習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⑧ 마지막으로 全體 討議에 들어간다. 각組

의 任命教師가 자기가 실천한 授業方法, 그리고 그 결과 小集團討議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요약 발표하도록 하고 學習者로서의 役割을 맡았던 학생들의 意見도 유도한다.

위의 여러 過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T의 核心部는 일련의 완전한 教授-學習活動과 이 활동을 想應 깊이 再吟味하는 活動으로 이루어진다.

Cruickshank, Holton, Fay, Williams, Kennedy, Myers & Hough(1981)가 開發한 RT 授業課題 36가지 중에는 '韓國의 指算法(The Chisanbop Task, a Korean method of computation that uses fingers and hands as calculators)', '日本의 종이 접기工作(The Origami Task, Japanese paper folding)', '훌륭한 教師의 特性(The Good Teacher Task, attributes of effective teach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특정 領域에 관련된 과제가 아니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課題이다. 최근에는 教科指導法과 관련시켜 技術教育(Wolfson, 1983), 家政教育(Reighart, Wilsman, 1982), 農業教育(Peters, Moore, 1983)등 각 領域에서 과제를 추출한 RT 資料가 개발되고 있다.

紙面 관계로 Cruickshank et al. (1981)이 개발 제시한 36개의 課題 중 가장 簡單한 것 하나를 참고로 紹介하기로 한다.

블럭 다이어그램 과제(The Block Diagram Task)

※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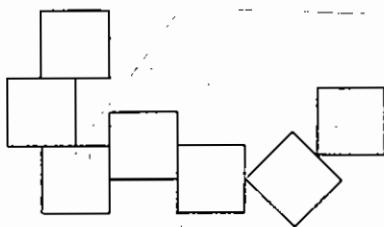
일반적 지시사항

학생은 동료 학생들 5~6명을 대상으로 본 RT 수업과제를 가르치도록 임명되었다. 수업을 받을 동료 학생들은 물론 수업을 할 자신도 반복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 수업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이 준비한 수업을 실시하는 시일은 ○월 ○일 ○교시이다. 학생을 이제부터 임명교사라 부르겠다.

임명교사의 목표

임명교사가 성취하여야 할 목표는 되도록 많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에 제시된 도형을 꼭 같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정사각형의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7개 정사각형의 배열은 주어진 그림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허용된 시간은 10분이다.

〈그림〉



준비자료

- (1) 16점 경지 5~6매(임명교사 준비)
- (2) 학습자 만족도 조사표(지도교수 준비, 당일 배부)
- (3) 채점표 별첨

제한조건

- (1) 임명교사는 일체 다른 수업매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언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학습자인 동료 학생들의 책상을 원형으로 배열하고 원 바깥쪽을 향하여 앉도록 한다. 이것은 학생 상호간에 각각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수업 후에 할 일

- (1) 학습자인 동료 학생들이 모두 과제를 끝냈

으면 곧 바로 지도교수에게 손을 들어 알리고 (다른 임명교사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 학습자 만족도 검사표를 받는다.

(2) 학습자에게 수업에서 설명한 도형을 보여주고 각자 자기가 그린 도형을 바로 차도록 한다.

(3) 학습자 만족도 검사표를 배부하고 각자 기록하게 한다.

(4) 학습자가 검사표를 그린 그림을 전부 바르게 그린 학생은 1점, 틀리게 그린 학생은 0점을 채점표에 기록하고 그 점수를 합산한다.

(5) 학습자가 그린 그림을 돌려주고 학습자 만족도 검사표를 회수한다.

(6) 소집단 토의를 시작한다.

V. 結論

이상에서 大學에서 職前教師에 대한 教授法 指導의 重要性을 강조하였고 指導方案으로 제시된 microteaching, simulation, protocol의 長·短點을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 大學의 現實的 與件에 비추어 큰 무리 없이 適用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reflective teaching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시 美國에서 그 나라의 教育與件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概念을 살려 우리 實情에 알맞는 課題, 그리고 實踐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の 實踐經驗으로는 “Do as I say, not as I do.”식 講義를 진행할 때보다는 教授法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學習과 教授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생각한다고 보았다. *

